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개최

유형별 최우수공동체 ▶ 내수면 원주섬강 양식·복합 삼시도 마을 웅도 어선 거제새우조망



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은 심사결과 발표 후 최우수, 우수공동체 위원장이 심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가 11월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3층에서 개최됐다.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 유형별 최우수-우수공동체는 △내수면 : 원주섬강어업계(강원 원주)-연천내수면(경기 연천) △양식·복합 : 삼시도(충남 보령)-송호(전남 해남) △마을 : 웅도(충남 서산)-안포(전남 여수) △어선 : 거제새우조망(경남 거제)-비

웅도(전북 군산)공동체가 각각 선정됐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점수와 2016년 공동체 평가점수를 반영해 본선 진출공동체를 최종 선정, 이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유형별 최우수, 우수공동체를 확정하고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내수면분야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원주 섬강내수면어업계는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어장관리,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어업생산 기반구축 등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어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발표 모습.

양식·복합어업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삼시도공동체는 바지락과 해삼의 효율적인 어장환경 조성으로 고소득을 일궈냈으며, 마을어업 최우수인 웅도공동체는 가무락 등 패류에 대한 채포 크기 제한, 자체 조업 일수 설정 등 생산량 조절로 황폐화된 어장을 복원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선어업분야 최우수인 거제새우조망공동체는 꾸준한 어획감각 노력과 조업 구역이 중복되는 복합어업과의 MOU 체결 등으로 어업분쟁 해소에 적극 나서 자율관리어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2018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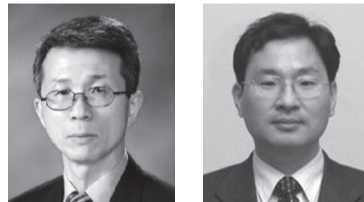
12월 중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는 2018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를 오는 12월 중순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17년 확정된 선진공동체(61개소) 중 선진등급으로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체(4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공동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특별사업비 신청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후보공동체를 선정한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 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수산과학원장에 서장우·수산정책실장에 신현석 임명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부터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에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승진임명하는 '실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서장우 신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1962년생으로 부산수대(현 부경대) 수산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수산생물학 석사, 전남대에서 수산과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현석 신임 수산정책실장은 1962년생으로 부산수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수산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어업자원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전수교육

제주 세화공동체, 종달공동체 방문 현장교육



제주 세화공동체 회원들의 현장교육 후 기념촬영 모습.

제주도 서귀포시 세화공동체 구성원들은 11월 20일 제주의 대표적인 공동체인 종달공동체를 방문, 현장교육을 받았다. 세화공동체 회원 26명은 이날 종달공동체 김홍철 전 위원장으로부터 성공사례를 전수받는데 이어 전자상거래 운영체계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돛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수산자원 이식승인기준 마련 수산과학원,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은 11월 10일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의 이식기준을 마련했다.

원의 이식품종, 수량, 크기 및 시기 등에 대해 업계의 개정요청 사항을 협의·조정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외래질병 유입예방과 우리나라 수서생태계의 보호를 감안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의 이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1월 10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수협, 학계, 업계 등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도 수산자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도내 내수면공동체 어업인 80여명 대상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는 11월 17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충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임원, 회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충북도 북부권 내수면공동체 어업인 등 80여명이

참석, 내수면과 관련한 정책 및 공동체 평가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는 향후 충북도 남부권 어업인에 대한 확산교육 및 남한강공동체에 대한 현지 방문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경남 고성군연합회, 바다 대청소 및 수중정화활동 펼쳐



자율관리어업 고성군연합회는 11월 20일 고성군 관내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펼쳤다.

경남 고성군 해양수산과 및 고성군수협 등 관내 기관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이날 바다 정화 활동에서 폐그물 및 어업폐기물 9톤을 비롯, 총 1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고성군연합회는 11월 20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장항마을 장항선착장 인근 해안가에서 바다 대청소 및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날 수거한 생활쓰레기는 고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및 소각 처리하고, 폐부자 및 폐그물 등은 간이집하장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에 기수재첩 종묘 30여만미 방류



강원도 고성군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11월 6일 송지호에서 윤승근 군수와 관내 내수면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수재첩 30여만 마리를 방류했다. 고성군은 "2017년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의 대상품종으로 기수재첩을 선정, 현지 적응에 유리한 도내 생산종묘를 우선 매입해 방류하기로 했다.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대만

대만의 자원관리 및 어류, 전복양식 현장 등 견학

금년도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타이페이, 지룽)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우수공동체 구성원 11명을 비롯, 해수부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대만 최대 어업단체인 전국어회(대만어업협회)를 비롯, 송어와 새우, 전복양식장 등을 방문해 우리 어업 현장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대만의 인구는 2,300여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업종사자는 2016년 현재 32만 명을 넘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산물종은 새우, 갈치, 참돔 등이며, 양식업 수준도 높은 편이다.

연수단은 먼저 우리의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대만의 전국어회를 방문해 대만의 수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만도 어업인 수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정부와 어회에서 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연수단은 대만 신죽시 해변가에 위치한 송어양식장을 방문했다. 18



자율관리어업 연수단이 대만의 친환경 새우양식장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만 전국어회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대만의 수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만평 규모의 축제식 양식장인 이곳에서는 자연산 치어를 채포해 3kg 정도로 성장시킨 후 출하하는데, 생산량은 연 16만미 정도로 약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료는 하루에 3회 정도 자동으로 급이하며, 새우와 함께 복합양식을 함으로써 수면적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부가가치를



대만 북동부 바닷가에 위치한 전복양식장. 해변에 수조를 만들고 해수를 교환하여 전복을 양식하는 친환경양식장이다.

높이기 위해 체험시설을 운영하며, 판매 및 체험을 병행해 오고 있다.

다음 방문한 곳은 친환경 횡다리새우양식장. 1998년 설립 당시에는 뱀장어를 양식했으나 2010년경 뱀장어 치어가격이 폭등하자 양식품종을 횡다리새우로 전환, 현재는 무항생제로 키운 새우를 관광객들이 견학과 함께 시

식도 겸할 수 있도록 조성한 양식장이다. 용수는 해수와 민물을 일정비율로 섞은 살균수를 사용하며, 수산연구소에서 생산한 무균 상태의 새우종자를 마리당 한화 2원 전후로 구입해 입식하고 있다. 1년 2차례에 걸쳐 출하하는데 3월에 입식한 것은 7~8월경 출하하고, 9월에 새로 입식하면 이듬해 2월경 출하가 가능하다. 수산연구소의 기술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질을 점검하고 있다. 이곳 양식장은 바다와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정부에서 해수관로를 시설해 주고, 대신 바닷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두성구 어회의 전복양식장은 1992년 해외에서 전복양식 기술을 도입, 소규모로 양식을 추진하다가 점차 확대하여 현재 개소당 약 330㎡의 노지 수조 12개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배합사료와 염장미역, 다시마를 구입해 먹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전복 치패를 2년 정도 키워 출하하고 있다.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해변을 이용해 수조를 만들고, 해수를 교환하는 친환경적 양식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연수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별기고

일선 사례를 통해 본 어선어업 공동체 발전방향

자출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꾀하기 위한 자율사업으로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섯가지 참여유형(마을-양식-복합-내수면-어선) 중 어선어업 유형은 다른 참여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꾸준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거제새우조망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본 어선어업 유형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선어업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상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업과정에서 경쟁 업종간 합의가 없는 한 계속적인 불신과 반목이 팽배하며, 이로 인한 어구손상 등 재산상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정장치로 수산조정위원회 및 민간 자율조정 협의회를 두고 어업분쟁 및 갈등 해소

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조정결과에 대해 추후 분쟁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소송으로 까지 비화돼 업종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출관리어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단결과 의식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자출관리어업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공동체 지도자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인식하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기술보급기관과 한국수산회의 컨설팅 교육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제새우조망공동체는 주 조업구역의 새우 생산량이 EEZ모래 국책사업



김효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장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하자 자체규약을 통해 어획능력을 삭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새우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구 개선을 통해 어획강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 것이다. 이를 위해 거제 새우조망공동체는 망구를 기존 10~12m에서 8m로 축소하는 한편 망목도 그물 14~16절에서 12절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무제한으로 어획해 왔던 활새우를 1일 할당 조업량(150kg) 미만으로 제한하여 어족자원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어획된 새우를 2차 가공처리하고 기존 위탁에 의한 판매위주에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다양한 루트(직판장, 인터넷 등)를 마련해 유통 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핵가족시대의 젊은 소비층을 겨냥

해 소포장 및 진공포장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한 결과 연간 8,000만원의 어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공동체는 자원남획 요인으로 새우조망어업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구획이탈을 일체 근절하고 확보된 공동체 적립금으로 매년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에 힘쓰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하는 각종 폐어구 및 연안쓰레기 수거를 지역언론을 통한 미담사례로 소개해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그동안 같은 조업구역을 이용하는 복합어업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최근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협의구역 MOU를 체결, 그동안 쌓였던 불신 해소는 물론 발전적인 공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초석을 놓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를 볼 때 자출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의 자원관리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의지와 실천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수산자원 관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에서 열린 수산자원관리 정책토론회 모습.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 토론회가 11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새정부 수산자원정책 추진방향과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 연구실장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김도훈 부경대 교

수,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서성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장, 정만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무,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차형기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새정부 수산자원정책 추진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해수부는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바다숲바다목장 확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가칭 ‘낙시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이용권을 통해 징수된 비용은 낙시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와 수산자원 조성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 입어규모 축소 등 성과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예방 단속 강화

내년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와 양국 고위급 회담 결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철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했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12척 감축된다. 유사망 어선은 8척, 선망 어선은 20척 감축된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 기간을 일부 조정,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 시기에 조업

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업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이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조업기간 마감일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수산회, 미국 LA에서 K·FISH 브랜드 런칭 행사 수산물 수출브랜드 'K·FISH', 해외 인지도 제고



한국수산회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국 LA에서 브랜드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케이 피시(K·FISH) 브랜드 런칭 행사'가 11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LA타임즈 등 현지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수산식품 바이어, 유명 푸드 컬럼니스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의 대표 수산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를 해외에 소개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K·FISH 브랜드 런칭 행사는 폭스TV 유명 앵커 '줄리 장'의 사회로, 브랜드 소개 및 제품의 우수성 홍보에 이어 미국 현지 언론매체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2부 부대행사로 진행된 쿠킹쇼에서는 수산물 요리전문가인 '케리 해프너'가 K·FISH 품목인 넙치를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한국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높이 평가했다.

현지 언론매체의 호응도 좋아 LA타임즈는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FOX 11 TV방송은 아침 생방송으로 K·FISH 품목인 넙치, 미역, 김을 주제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보도했다.

한편 한국수산회는 향후 중국 등 아세안지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 K·FISH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수출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에서 '제1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



수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이 군산에서 개최됐다.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을 이어온 '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주관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회장 문승국)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을 선포하고 수산업의

주요 해양수산 기관·단체와 관계 공무원, 수산계 고교생 및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인재육성 포럼, 2017년 신지식인 선정자 우수사례 발표와 정부 포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헌법에 해양주권 반영해야”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 관련 헌법 개정 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런됐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수산분야 토론회자로 나선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

무총장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가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부어업인·국민 간 상호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가족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제 유지·발전을 위한 어업인력 육성정책 수립과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7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20개국 400여개사 참여



11월 8~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7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전시장 전경.

2017년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가 지난 11월 8~10일 사흘간 부산 벡

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401개사가 참가, 2만2000여㎡ 전시장에 910개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전시장은 수산식품관(Seafood), 수산기자재관, 해양바이오산업관의 3개 주제로 구성됐다. 부산시어(고등어)홍보관, 신제품 설명회장, 수출입 상담회 등도 마련됐다.

공동체 탐방 / 강원 원주섬강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

‘원주섬강 민물고기테마파크 조성’에 적극 참여, 내수면 체험·관광공동체로 거듭날 터



한진규 원주섬강어업계공동체 위원장



쏘가리, 대농갱이 등을 주요 소득품종으로 내수면 어로어업을 선도하고 있는 원주섬강공동체의 삶의 터전 섬강의 좌측이 하류이다.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를 자주 방문하여 정보교환과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원주섬강어업계공동체가 내수면부문에서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

원주섬강공동체는 자율적인 금어기 및 포획금지제장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산란장 조성(투석) 및 생태계 교란어종의 지속적인 구제활동으로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내수면 어종의 자원회복에 적극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원주시 섬강(48.19km) 및 남한강 일원(10.82km)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곳 공동체는 한진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17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내수면공동체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원조성과 관리 그리고 유통개선은 해면 및 내수면의 모든 어업에 적용되는 핵심과제이다.

먼저 자원보호를 위해 이곳에서는 산란기인 4~5월에는 자망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소득품종인 쏘가리의 경우 법적 채포금지 기간보다 20여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누치, 강준치, 베스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지속적으로 구제

하는 한편,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매년 10톤 이상의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사매매에 의존해 왔던 판매방법을 개선, 공동체를 통해 유통상인과 가격협상을 벌여 출하가격을 20% 가량 높인 것도 공동체 결성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체 직판장을 건립하고, 강원도 인근 지역으로 늘려오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먹을 수 있는 소포장의 가공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섬강민물고기테마파크 조성에 적극 참여, 조만간 내수면 최초의 체험·관광공동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한편 한진규 위원장은 “내수면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어업 근절 못지않게 자원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치어방류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면의 생태와 환경은 지역현장의 어업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치어 방류시기와 방류품종 선정시 어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